

국내 학교상담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연구 비교

최정아 이해은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and Task on Korean School Counseling teachers: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versus Career Counseling Teacher

Choi Jung Ah Lee Hye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Feb 11 2018
Revised Mar 27 2018
Accepted Mar 30 2018

Keywords: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career counseling
teacher, school counseling
teacher, review of research

주제어: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학교상담교사,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domestic research trend and task on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and career counseling teacher to provide basic data for finding a way to develop the status of counseling research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school counselors researches have continued until now. As research subjects, both of the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and the career counseling teachers' study has a large amount of the study related to roles of the counseling teachers. The other research subjects were abilities of counseling teachers, ethics · law · institutional research,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t al. in order.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and mak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구. 진로진학상담교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학교상담 관련 연구 분야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상담교사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전문상담교사 학술지논문의 경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거의 대등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진로전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양적연구를 제외한 문헌 연구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었다. 셋째, 연구주제별로는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연구 모두 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상담교사의 역량, 상담교사 관련 윤리 · 법 · 제도 연구 순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측정도구는 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helee11@snu.ac.kr

I. 서론

학교상담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학교에서 인성의 건강한 발달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으로 생활지도 영역에 속한다(김계현 외, 2000; 김계현, 2009). 학교상담은 일반 심리 상담과 달리, 발달적으로 접근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발생 이전에 다양한 방법의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학교상담자에게는 일반 상담자와는 다른 역할과 능력이 요구된다(Conyne, 2004). 즉, 학교상담자는 학생, 교사 등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상담과 자문, 조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현아, 이기학, 2009; 천성문, 설창덕, 2003). 그래서 학교상담은 학교현장에서 학교상담자가 실시하는 상담활동 역시 전체적인 교육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연문희, 강진령, 2002). 일반적으로 학교상담의 역할과 범위는 미국학교상담학회(ASCA)에서 제시한 종합적 모델 중심으로 논의되며, 학교상담의 범위는 학업발달 영역, 진로발달 영역, 인성 및 사회적 발달 영역으로 설정된다(김계현 외, 2009). 학교상담의 대상이 주로 아동·청소년이며, 학생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과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학업, 진로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생활습관, 정서와 성격, 인간관계 측면도 균형 있게 발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상담은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 학업문제, 진로문제, 인성 및 사회성 발달, 교우관계문제, 가정문제, 비행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개입하는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Wittmer, 2000).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상담 전문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건설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학교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은 2017년 12월 현재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구: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 인턴교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학교사회복지사, 보건교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이다(교육부, 2016; 김인규, 2011; 김지연, 김동일, 2016). 전문상담교사는 국내 최초로 학교장면에서 상담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한 학교상담교사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상담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치

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배치된 상담 전문 인력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고, 실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배치는 2005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161명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도부터는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였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증원해서 신규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문항익, 2015; 황준성 외, 2011). 이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 대신하여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직의 형태로 전문상담사라는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학교의 Wee 클래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간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반면, 신분 보장과 처우 면에 있어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전문상담사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한국교육개발원, 2014), 전문상담사는 학교상담 운영에 주도성을 지니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이지원, 오인수, 2016). 한편, 진로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이라는 중등교원 자격이 2011년에 신설. 2017년부터 진로전담교사(구. 진로진학상담교사)란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진로전담교사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 4조(진로전담교사)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호 2항의 ‘진로진학상담’과목 신설과 그에 따른 진로진학전담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시·도 교육감에 의해 발령을 받은 교사를 칭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진로전담교사 양성은 부전공 자격연수와 함께 2017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6).

이렇게 학교상담 인력을 다각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몇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피해 응답 건수가 점차로 감소하였다(교육부, 2017). 둘째, Wee 센터를 통하여 학생의 문제해결 및 신장, 학교조직 안정화, 프로그램 체험의 즐거움, 학생 보호자의 만족과 성취, Wee 센터의 포괄적 지원체제 제공이라는 주요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길자, 손진희, 2012). 이 외에도 전문상담교사가 제공한 학교상담의 도움 요소로 자문 및 조언, 심리적 지원, 정보 제공, 교사 간 협력, 상담 환경 조성 및 홍보, 외부기관 연계, 예방 활동, 위기 개입, 학생과 공감적 관계 형성, 상담교사의 전문성, 학부모 상담, 중재 등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담임교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자살, 임신, 폭력, 자퇴 등의 위기개입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수정, 오인수, 2016).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등 학교상담 인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교사에게 부과되는 학교상담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상담교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많

은 어려움과 역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진령, 2002; 김인규, 2012; 이현아, 이기학, 2009; Wilkerson & Bellini, 2006). 이러한 학교상담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박근영, 임은미, 2014; 서지영, 김희정, 2011;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학교상담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갈등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많다. 학교상담교사는 교사와 상담자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일원화된 업무 체계가 제시되지 않아 교육행정가의 재량에 따른 업무를 감당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박근영, 임은미, 2014; 손혜진, 2010).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 다양한 주체가 학교상담교사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할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조정과 자문을, 학생과 학부모는 대집단 생활지도에, 학교행정가는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자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 학교 급별로 요구하는 학교상담교사의 역할도 달랐다(신현숙, 김인아, 류정희, 2004; 허승희, 박성미, 2008). 둘째,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다. 현재 학교상담교사들은 너무 많은 학생 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미비, 상담 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부하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대, 2007; 이현아, 이기학, 2009; 황정희, 오정희, 2012). 게다가, 학교상담교사들을 위한 ‘학교상담법’과 같은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권수영 외, 2016; 김영근 외, 2012; 김인규, 2017; 성현모, 이상민, 2017). 이에 앞으로 학교상담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 뿐 아니라(김영근 등, 2012; 김인규, 2017), 학교상담교사들의 직무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상담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이에 학교현장에 본격적으로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학교상담을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 및 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상담교사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쟁점의 흐름을 분석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학교상담이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초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학교상담 담당인력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에 주목하였다.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는 학교상담을 견인하는 핵심적 주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원으로서의 법적 보장도 받고 있는데(이지원, 오인수, 2016),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혹은 기타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칭하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김민향, 김동민, 2015)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며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문상담사 집단은 학교상담을 수행할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대신하여 임시로 보급되는 인력이므로(이지원, 오인수, 2016), 학교상담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전문적 영역으로서 학교상담이 기틀을 잡아가는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학교상담의 핵심주체인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에 관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두 교사제도가 운영되어 온 기간이 다르다. 전문상담교사는 2005년 배치 이후 약 12년 정도가, 진로전담교사는 2011년 배치 이후 약 6년 정도가 지나고 있다. 이렇듯 제도 시행기간의 차이는 시간경과에 따라 제도정착과정 및 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력의 내용과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된다. 둘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진로전담교사보다 8년 정도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에 있어서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상담교사는 2016년 기준 중·고등학교에 16.2%의 배치율에 불과한 반면, 뒤늦게 시작된 진로전담교사는 같은 시기 기준 96.6%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이렇듯 인력충원율의 차이 역시 각 교사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 당면한 현안이 상이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셋째, 진로전담교사는 교과교사인 반면, 전문상담교사는 비교과교사라는 차별점도 지니고 있다. 교과교사의 유무는 동료교사 및 학생·학부모의 해당 교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점도 제도의 정착과정과 연구의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각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상담영역도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현장중심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양 교사의 통합 추진을 검토하되, 일단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의 영역 중 인성 및 심리 상담을,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을 담당하도록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학교상담의 내실을 다지고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의 두 상담교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력해야 할 세부적인 영역과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필요한 연구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7년 12월 까지 약 17년 동안 학교상담의 주요 인력인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이슈,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주고 학교상담 분야를 더욱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교사 관련 연구의 연구 대상, 주제, 방법, 측정도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전문상담교사 연구와 진로전담교사(구. 진로진학상담교사) 연구는 각각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두 연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교사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담교사와 관련된 연구 중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약 17년간 이루어진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에 국내 학교 현장에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학교상담자 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문헌검색과정에서 사용한 주요어는 ‘학교상담자, 전문상담교사, 학교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이다. 이러한 주요어를 바탕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와 EBSCO,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대학도서관, 주요 학술지 검색 등의 학술정보검색시스템과 구글 검색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상담교사 관련 학술지와 학위논문 473편을 확보하였다.

2차적으로 2명의 연구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연구들은 학술지를 중심으로 채택하였으며, 보다 세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집된 선행 연구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제목에는 이 주요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구문제 및 결과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한 경우도 분석대상 논문으로 포함시켰다(고홍월 외, 20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이외에 일반교사의 상담 관련 연구나 기타 학교 상담 인력 관련 연구는 제외하고 연구 대상에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만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 학술지 64편, 학위논문 72편, 진로전담교사 연구의 경우 학술지 31편, 학위논문 11편 등 총 178편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의 분석대상으로서의 타당성에 관해서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의 자문 및 검수를 받아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논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연도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학술지논문(64편)	학위논문(72편)	학술지논문(31편)	학위논문(11편)
2000	권순명(2000)	-	-	-
2002	백옥현(2002)	-	-	-
2003	김현래, 이종연(2003), 이상민(2003)	김은정(2003), 윤중섭(2003) 김주환(2003), 전광희(2003)	-	-
2004	김학일(2004)	이후규(2004)	-	-
2005	김동일, 신윤진, 안현의(2005) 이현림(2005)	최은실(2005), 조아롱(2005) 정혜경(2005)	-	-
2006	유순화, 류남애(2006) 유형근(2006)	구자신(2006), 박진명(2006) 가재경(2006)	-	-
2007	유형근(2007), 손현동(2007)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2007), 금명자(2007) 강진령, 이종연, 손현동(2007) 조영희, 허승희(2007)	진혜영(2007), 조영희(2007) 이정은(2007), 나문경(2007) 이은정(2007), 김진선(2007) 이효정(2007), 김태순(2007) 신승희(2007)	-	-
2008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2008) 이규미, 권혜수, 김희대(2008) 권효진, 이숙향(2008) 김현숙, 심혜숙(2008)	홍경숙(2008), 진명식(2008) 하기철(2008), 이경은(2008) 도명숙(2008), 오효순(2008)	-	-
2009	유형근(2009), 신효선(2009) 강진령, 유형근, 손현동, 조용선, 이현아, 이기학(2009) 금명자, 정경미, 이미숙(2009) 강진령(2009), 김인규(2009)	홍현경(2009), 김신애(2009) 신효선(2009), 이성혜(2009)	이진남(2009)	-
2010	김인규, 조남정(2010) 김정숙, 유금란(2010) 오인수(2010), 홍대우(2010) 최보영, 이지희, 이상민(2010)	이성심(2010), 정봉희(2010) 손혜진(2010), 이현아(2010) 성혜숙(2010), 이지희(2010) 김정숙(2010), 안금옥(2010) 김영(2010), 박영희(2010) 이현아(2010)	-	-
2011	배인수, 이윤주(2011) 김인규, 조남정(2011) 서지영, 김희정(2011)	이광용(2011), 서지영(2011) 서문희(2011), 배호영(2011) 지정하(2011), 이광용(2011)	조재성(2011), 이상란(2011) 박용호(2011)	-
2012	김혜숙, 이기학(2012) 손현동(2012), 강민철(2012) 이진희, 김희대, 이상민 (2012) 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2012)	김진영(2012), 소정(2012) 이미진(2012)	김나라, 방재현, 정진철(2012a) 김나라, 방재현, 정진철(2012b)오정숙(2012), 이병욱(2012) 장창곡, 이지연, 장진이(2012)	강혜정(2012) 박재환(2012) 박종학(2012) 김대성(2012) 박효진(2012)
2013	최하영, 서유진(2013) 엄재춘, 조영옥, 임경희(2013) 장환영, 김경민(2013) 박성현, 황순영, 장우영(2013)	-	이진남, 이종범, 정진철, 고재성 (2013)	-
2014	김지정, 이영순(2014) 박근영, 임은미(2014) 임은미(2014), 홍지영(2014) 한아름, 오인수(2014) 강석영, 이창호, 이동훈(2014)	김도경(2014), 이혜정(2014) 김순희(2014), 김하영(2014) 서진희(2014), 진혜은(2014) 류남애(2014), 한아름(2014)	홍지영, 유정이, 김진희(2014) 오정숙(2014), 류영철(2014) 장원섭, 강예지, 이혜나, 이민영 (2014)	김은경(2014) 이은선(2014) 박영주(2014) 조경화(2014)
2015	구승영, 김계현(2015) 김민향, 김동민(2015) 김지연, 김동일(2015) 박애경, 허정경(2015) 이지연, 조희연, 이영아(2015)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2015)	박영애(2015), 김수현(2015) 문향익(2015), 김아람(2015)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2015) 이승진, 송해덕(2015) 장창곡, 박미란, 이지연(2015) 한현우, 이병준(2015) 임은미, 여영기(2015) 김옥선, 권정연(2015)	-

	이영아, 손은령(2015) 김지연, 김동일(2015)		천성문(2015)	
2016	송수정, 오인수(2016) 김지연, 김동일(2016) 채현순, 장유진(2016) 남순임, 유형근(2016) 이지원, 오인수(2016), 허난설(2016)	박미숙(2016), 김은경(2016)	장현진, 이진솔(2016) 최윤정, 김지연(2016) 장현진, 이종범(2016) 송은숙, 권정연(2016) 류영철(2016)	김미경(2016)
2017	박윤원, 신효정(2017) 임은미, 조남정(2017)	이정훈(2017), 안운원(2017) 오세희(2017), 황지선(2017) 윤운영(2017), 김수경(2017) 정은미(2017), 최임순(2017)	장창곡(2017) 장창곡, 이지연(2017) 유은선, 이종연(2017) 류영철(2017), 권대훈(2017)	정구용(2017)

B. 분석방법

연구를 분류함에 있어 많은 동향 연구들이 연구의 제목, 출판년도 등의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최정아, 2017). 이에 이 네 가지 큰 틀에 입각하되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참조하여 ‘측정도구’를 분석기준에 추가하였다(고홍월 외, 2015; 김은하, 박승민, 2011; 김지경, 장현아, 2014; 홍지선, 김수임, 2017). 고홍월 외(2015)의 분석절차를 따라 1단계 논문 평정, 2단계는 논문의 기본 정보 분석, 내용에 따른 주제 분석의 3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세부 주제 분석 틀에 따른 분석 및 평정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김은하와 박승민(2011)과 최정아(2017)의 분류범주를 참고하여 다음의 표 2과 같이 연구의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분석방법,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주제의 경우, 선행연구에 동일한 주제의 분석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따라 수행하거나 다소 보완하여 수행하면 되지만, 분석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각 연구 고유의 특색을 반영하여 내용분석을 실시, 자체적인 별도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의 적합한 분석틀이 존재하지 않아 Falco 외(2011)의 내용분석 절차를 따랐다. 3단계인 평정단계에서는 2명의 연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교차검토하면서 불일치를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상담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의 평정을 통해 분석틀과 분석 내용에 대한 평정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물 분석의 분류 범주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본정보	출판년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대상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혼합, 진로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 혼합, 기타
연구방법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 연구,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분석 방법	양적연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t-검증, 회귀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구조방정식(SEM), 다층모형(HLM) 등
	질적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CQR, 내러티브, 사례분석, Q방법론 등

1. 연구대상, 연구방법 분석기준

먼저, 연구의 기본 내용은 통상적인 동향연구의 분류방식인 출판년도, 학술지·학위논문으로 구분하되,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상담교사로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로 구분하였다. 단, 상담교사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이거나, 시행되었지만 배치되기 이전 자격연수를 받는 상태인 경우 예비상담교사로, 실제 현장에서 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상담교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나 진로전담교사를 구분함에 있어, 연구대상에 다른 상담인력이 포함된 경우, 각각 ‘전문상담교사 혼합’, ‘진로전담교사 혼합’으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나 진로전담교사를 주제로 한 연구이지만 조사대상자가 당사자가 아닌 일반교사, 학교행정가, 학생, 학부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Creswell(2003)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의 3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한 ‘문헌연구 항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의 경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라는 중분류 하에 분석명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측정도구 분류기준

국내 상담교사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주은선, 박영주, 2015; Beutler 외, 2004)를 참고하여 최초 개발자와 번안자, 각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문항수와 리커트 점수, 신뢰도와 타당도 제시 여부, 사용빈도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주제 및 주요 변인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상담교사 관련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분석절

차(Falco et al, 2011)를 통해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2명의 평정자 각자가 개략적으로 연구물들을 훑어보고 각자 연구주제의 분류범주를 생성해 내었다. 그리고 나서 두 평정자가 만나 분류범주를 논의하였고, 유관분야의 동향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범주들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분류범주를 다듬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관분야의 동향연구는 국내에 학교상담을 소개한 미국의 전문학교상담지의 분류틀(Bradeley et al, 2014; Falco et al, 2011)이었는데, 국내의 학교현장에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의 학교상담자와 국내 학교상담교사의 업무나 특성이 달라 Bradley 등(2014)과 Falco 등(2011)의 분류틀이 맞지 않아 본 연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본 국내 상담교사의 연구동향은 주로 직무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담교사의 역할, 역량, 전문성 발달이라는 분류범주를 생성하였고, 여기에 더해 정책적 측면에 해당하는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를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상담교사가 지니는 개인내적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이라 명명하여 추가하였다. 이 때, ‘상담교사의 역할’의 경우, 직무를 통해 직업의 적응을 설명하는 ‘직업적응이론’(Dawis & Lofquist, 1984)의 개념을 차용하여 하위주제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직업적응이론에 따르면, 직업종사자가 자신이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직무만족’으로, 고용주나 서비스의 수혜자와 같이 수요자가 해당 직업종사자가 직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직무충족’으로 개념화하였다. 상담교사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가 직무와 관련되는 만큼, 이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직무충족’의 분류명을 하위주제범주에 포함하였다.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하위주제는 우선 ‘직무’, ‘상담교사 당사자가 직무에 대해 지니는 인식(이하 ‘당사자’)', ‘주변인의 직무에 대한 인식(이하 ‘주변인’)'이라는 큰 틀 하에, 먼저, ‘직무’ 범주에는 상담교사에게 주어지는 직업상의 과업 자체를 연구한 연구물들을 포함시켰다. ‘당사자’ 범주의 경우, 상담교사의 역할관련 스트레스·갈등·소진과 같이 상담교사가 자신의 상담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경험, 직무정체성, 직무에 대한 기대, 직무에 대한 만족도로 세분화 하였고, ‘주변인’ 범주의 경우, 일반교사, 교장, 교감 등 학교행정가, 학생, 학부모 등이 상담교사의 직무에 거는 기대와 직무충족으로 세분화하였다. ‘상담교사의 역량’은 요구, 육성, 평가로 세분화하였다. ‘요구’란 상담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을 말하며, ‘육성’이란 각각 교육과 슈퍼비전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상담’교사라는 특성상 활용되는 교육방식인 ‘슈퍼비전’과 일반적인 ‘교육’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는 상담교사의 역량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범주이다. ‘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이란 상담분야

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담’전문가로서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성한 분류범주이다.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이란 상담교사가 지니는 성격 특성 등 ‘상담’이라는 분야와 상관없이 지니는 개인내적 속성을 연구한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범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는 상담교사제도와 관련한 윤리, 법, 제도적 이슈를 다룬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분류범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기타’범주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주제 분석틀이 연구자들의 내용 분석(Falco et al, 2011)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상담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의 자문과 검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류범주는 다음 표3와 같다.

〈표 3〉 연구주제 분석틀

연구주제		하위주제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상담교사의 역할	직무		
	당사자	직무정체성	
		직무기대	
		직무만족	
		직무수행 경험	
	역할 관련 어려움	역할 관련 스트레스	
		갈등	
		소진	
주변인	직무기대		
	직무충족		
상담교사의 역량	요구		
	육성	교육	
		수퍼비전	
	평가		
상담교사의 전문성발달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			
기타			

4. 평정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따른 논문 편수를 분석함에 있어 동일 연구가 여러 분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빈도 파악을 위해 Buboltz, Miller와 Williams(1999)의 방식을 따랐다. 각 연구는 1편당 빈도 ‘1’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연구가 한 개 이상의 분류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단위 연구가 해당되는

분류범주의 수를 분모로 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가령, 한 연구가 한 개의 분류 범주에만 해당될 경우 해당 분류 범주에 1점을 부여하고, 두 개의 분류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0.5점을, 세 개의 분류 범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0.33을 부여하는 식이다.

III. 연구결과

A. 발행연도 및 대상자별 논문수

〈표 4〉 발행연도 및 대상자별 논문 수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학 술 지 논 문	예비전문상담교사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3(4.76)
	전문상담교사	0	0	1	1	1	1	2	0	4	4	1	3	1	3	3	3	1	29(46.03)
	전문상담교사 혼합	1	2	0	0	1	-	3	2	1	1	1	1	1	3	5	1	1	24(38.10)
	기타	0	0	0	0	0	0	0	2	1	0	1	0	1	0	0	2	0	7(11.11)
	소계	1	2	1	1	2	2	6	4	6	5	3	4	4	6	8	6	2	63(100.00)
	예비진로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0	0	4(12.90)
	진로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0	3	4	2	2	12(38.71)
	진로전담교사 혼합	0	0	0	0	0	0	0	0	0	0	0	1	0	1	2	3	3	10(32.26)
	기타	0	0	0	0	0	0	0	0	1	0	0	2	1	0	1	0	0	5(16.13)
	소계	0	0	0	0	0	0	0	0	1	0	3	5	1	4	7	5	5	31(100.00)
	총계	1	2	1	1	2	2	6	4	7	5	6	9	5	10	15	11	7	94
학 위 논 문	박사	예비전문 상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
		전문상담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2(50.00)
		전문상담교사 혼합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25.0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25.00)
		소계	0	0	0	0	0	0	0	1	1	0	0	0	1	0	1	0	4(100.00)
	학위 논문	예비진로 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
		진로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
		진로전담교사 혼합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100.0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100.00)
		총계	0	0	0	0	0	0	0	1	1	0	0	0	2	0	1	0	5(7.46)
	석사 학위 논문	예비전문 상담교사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1.49)
		전문상담교사	0	0	2	0	0	2	1	1	2	7	3	1	0	4	1	1	31(46.27)
		전문상담교사 혼합	0	0	1	1	1	0	1	1	0	1	1	2	0	3	3	0	17(25.37)

	기타	0	0	0	0	2	1	6	4	1	2	2	0	0	0	0	0	0	18(26.87)
	소계	0	0	4	1	3	3	8	6	3	10	6	3	0	7	4	1	8	67
	예비진로 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0	3	0	1	0	0	0	4(40.00)
	진로전담교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10.00)
	진로전담교사 혼합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0	3(30.0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20.0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5	0	3	0	1	1	10(100.00)
	총계	0	0	4	1	3	3	8	6	3	10	6	8	0	10	4	2	9	77
	전체 총계	1	2	5	2	5	5	14	10	10	15	12	17	5	20	19	13	16	171

표 4과 같이 연도별 논문수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연구는 학술지논문이 2000년, 학위논문이 2003년부터 이루어졌고, 진로전담교사 연구는 학술지논문이 2009년, 학위논문이 2012년부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도별 경향을 분석대상별로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 학술지논문에서는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가 29편(46.03%), 전문상담교사와 일반교사, 전문상담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의 다른 대상을 혼합한 연구가 24편(38.10%), 기타 대상 연구가 7편(11.11%), 예비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4.76%)에 해당하였다. 학위논문에서도 박사학위논문 4편, 석사학위논문 67편이 진행되었는데 전문상담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빈도(박사학위논문 50%, 석사학위논문 46.28%)를 보였고 그 뒤로 혼합대상연구, 기타 연구 순이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가 전문상담순회교사라는 명칭으로 교육청에 배치되기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2005년 전에는 일반교사이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5년 이후에는 점차로, 수업을 겸임하지 않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진로전담교사 연구의 경우 학술지논문에서는 진로전담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38.71%), 일반교사, 대학교사, 진로상담 실무자,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학생 등과의 혼합대상 연구가 10편(32.26%), 기타 대상 연구가 5편(16.13%), 예비 진로전담교사 대상 연구가 4편(12.90%) 순이었다. 학위논문에서는 박사학위논문이 혼합대상인 연구 1편이 유일하였고, 석사학위논문은 예비 진로전담교사 대상 연구가 4편(40%), 혼합대상 연구 3편(30%), 기타 대상 연구 2편(20%), 진로전담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10%)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를 모두 포함한 혼합대상연구는 전무하였고 두 대상을 비교한 연구의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다.

B.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연구방법을 문헌분석,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통합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방법 동향

구분		전문상담교사 논문				진로전담교사 논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연구 방법	문헌분석	16.00	25.40	3.00	4.17	1.00	3.23	0.00	0.00	
	양적 연구	기술통계	7.41	11.76	10.79	14.99	7.82	25.23	2.41	21.91
		교차분석	2.16	3.43	6.00	8.33	0.75	2.42	1.50	13.64
		상관분석	2.59	4.11	9.34	12.97	0.67	2.16	0.58	5.27
		t검증	2.41	3.83	9.94	13.81	4.15	13.39	0.75	6.82
		회귀분석	2.59	4.11	8.24	11.44	0.00	0.00	0.13	1.18
		요인분석	0.50	0.79	2.50	3.47	1.00	3.23	0.33	3.00
		분산분석	4.34	6.89	6.65	9.24	2.50	8.06	1.21	11.00
		구조방정식	0.00	0.00	0.20	0.28	1.00	3.23	0.33	3.00
		다층모형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1.00	1.59	4.34	6.03	5.11	16.48	0.76	6.91
	소계	23.00	36.51	58.00	80.56	23.00	74.19	8.00	72.73	
	질적 연구	현상학	4.00	6.35	2.00	2.78	0.00	0.00	0.00	0.00
		근거이론	3.00	4.76	0.00	0.00	1.00	3.23	0.00	0.00
		개념도	2.00	3.17	3.00	4.17	0.00	0.00	0.00	0.00
		CQR	1.00	1.59	1.00	1.39	0.00	0.00	0.00	0.00
		내러티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례연구	0.00	0.00	0.00	0.00	1.00	3.23	0.00	0.00
		Q방법론	1.00	1.59	0.00	0.00	0.00	0.00	0.00	0.00
		생애사	0.00	0.00	0.00	0.00	1.00	3.23	0.00	0.00
		FGI	4.00	6.35	0.00	0.00	2.00	6.45	0.00	0.00
		문화기술지	0.00	0.00	1.00	1.39	0.00	0.00	0.00	0.00
		기타	5.00	7.94	2.00	2.78	0.00	0.00	1.00	9.09
		소계	22.00	34.92	9.00	12.50	5.00	16.13	1.00	9.09
		양적·질적 혼합연구	2.00	3.17	2.00	2.78	2.00	6.45	2.00	18.18
	총계		63.00	100.00	72.00	100.00	31.00	100	11.00	100.00

우선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에서, 학술지논문은 양적연구 23편(36.51%), 질적연구 22편(34.92%), 문헌분석 16편(25.40%), 양적·질적·통합연구 2편(3.17%) 순으로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의 빈도만큼 이루어졌고, 학위논문에서는 양적연구가 58편(80.5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진로전담교사 관련 연구에서 학술지논문 23편(74.19%), 학위논문

8편(72.73%)으로 모두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양적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방법들은 대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적연구의 통계방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술지 논문에서는, 기술통계(11.76%), 분산분석(6.89%), 상관분석과 회귀분석(4.11%), 교차분석(3.43%), 기타(1.00%), 요인분석(0.79%) 순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학위논문은 기술통계(14.99%), t검증(13.81%), 상관분석(12.97%), 회귀분석(11.44%), 분산분석(9.24%), 교차분석(8.33%), 기타(6.03%), 요인분석(3.47%), 구조방정식(0.28%) 순으로 적용되었고 다층모형을 적용한 논문은 없었다. 진로전담교사 관련 학술지논문에 적용된 통계방법에도 기술통계(25.23%)가 가장 많이 적용되었고 기타(16.48%), t검증(13.39%), 분산분석(8.06%) 등의 순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회귀분석과 다층모형을 적용한 논문은 없었다. 특히, 기타 통계방법으로서 델파이 연구 4편(장창곡, 이지연, 장진이, 2012, 2014; 유영철, 2014, 2017), 요구도 분석 3편(이승진, 송해덕, 2015; 장현진, 이진술, 2016; 송은숙, 권정언, 2016), 중요도-실행도 분석 1편(오정숙, 2014), 군집 분석 1편(장창곡, 이지연, 2015), AHP 중요도 분석 1편(김옥선, 권정언, 2015)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학위논문에서도 기술통계(21.91%), 교차분석(13.64%), 분산분석(11%), 기타(6.91%), t검증(6.82%) 등의 순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다층모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C. 연구주제에 따른 내용분석

〈표 6〉 연구주제 동향

연구 주제	하위주제		전문상담교사 논문		진로전담교사 논문		
			편수	%	편수	%	
상담 교사 의 역할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12.00	8.89	1.74	4.14	
	직무		5.00	3.70	1.88	4.48	
	당사자	직무정체성	2.09	1.55	1.95	4.64	
		직무기대	3.42	2.53	3.75	8.93	
		직무만족	5.59	4.14	0.68	1.62	
		직무수행 경험	14.26	10.56	1.25	2.98	
		역할 관련 어려 움	역할 관련 스트레스	6.18	4.58	2.28	5.43
			갈등	5.49	4.07	1.80	4.29
			소진	9.75	7.22	0.34	0.81
		주변인	직무기대	18.7	13.85	3.43	8.17
	직무충족		1.33	0.99	2.00	4.76	
	소계		71.81	53.19	19.36	46.10	

상담 교사 의 역량	요구		2.16	1.60	1.95	4.64
	육성	교육	14.18	10.50	7.04	16.76
		수퍼비전	3.00	2.22	1.00	2.38
	평가		0.84	0.62	4.51	10.74
	소계		20.18	14.95	14.50	34.52
상담교사의 전문성발달			11.17	8.27	0.50	1.19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			14.34	10.62	4.14	9.86
기타			5.50	4.07	1.75	4.17
계			135.00	100.00	42.00	100.00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연구주제 분석 결과는 Buboltz, Miller 와 Williams(1999)의 방식에 따라, 한 연구가 한 개의 분류 범주에만 해당될 경우 해당 분류 범주에 1점을 부여하고, 두 개의 분류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0.5점을, 세 개의 분류 범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0.33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연구 모두 상담교사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상담교사 관련 윤리·법·제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상담교사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 중 약 70-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연구 모두 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연구가 각각 71.81편(53.19%), 19.36편(46.10%)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교사의 역량이 각각 20.18편(14.95%), 14.5편(3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교사 관련 윤리·법·제도는 각각 14.34편(10.62%), 4.14편(9.86%)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담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모두 ‘역할관련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각각 15.79%, 10.53%).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상담교사 주변인의 직무기대 연구가 18.7편(13.85%), 진로전담교사의 경우는 상담교사 당사자의 직무기대 관련 연구가 3.75편(8.9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역할관련 어려움’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모두 역할관련 스트레스 및 갈등에 관한 연구의 비중은 전체 연구 중 약 5%내외로 유사하였으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역할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가 전체 연구 중 약 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이점을 보였다. 많은 수의 학생을 담당, 상담 외 업무 과다와 같은 업무과다 문제, 업무와 역할의 모호성, 관리자의 무지, 상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문성 함양 추구에 따른 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박근영, 임은미, 2014; 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이영아, 손은령, 2015; 한아름, 오인수, 2014), 전문직 정체성

(김정숙, 유금란, 2010),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서지영, 김희정, 2011), 정서지능(한아름, 오인수, 2014)이 소진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상담교사의 역량에 대한 하위주체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육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2.72%, 19.14%). 특이할 만한 점은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상담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육성’에 버금가는 정도의 4.51편(10.74%)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예: 정봉희, 2010) 및 사례개념화(성혜숙, 2010), 등교거부학생(류남애, 2010), 집단따돌림 학생(오효순, 2008), 학교폭력(이은정, 2007), 학부모 갈등 중재(나문경, 2007)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교육하는 연구들,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진로진학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장현진, 이종범, 2016), 자문기술(천성문, 2015), 전문가 행동, 노동시장 이해, 진로개발 측정, 다양성 이해, 윤리적 태도, 진로이론이해 및 활용, 고용가능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실행·관리, 홍보 및 대외관계형성, 테크놀로지 이해 및 활용, 정보관리 및 활용, 요구분석, 학습촉진, 진로상담(박용호, 2011) 등 진로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상담학적 개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담교사 관련 윤리·법·제도 연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윤리적 갈등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주제(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구승영, 김계현, 2015; 손현동, 2007;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손현동, 2012; 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강민철, 2012)와 전문상담교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인규, 2009; 이현림, 2005; 최보영, 이지희, 이상민, 2010; 홍대우, 2010)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진로전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진로전담교사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제도 연구나(박재환, 2012; 박종학, 2012) 직업체험의 성과요인(김옥선, 권정언, 2015)·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류영철, 2016)등 진로 관련 세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진로전담교사 연구와 달리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12편(8.89%)), 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11.17편(8.27%))에 대한 연구도 전체 연구의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 연구주제에 따른 측정도구 분석

〈표 7〉 연구주제 동향

연구 주제	하위주제	측정도구명	연구자	하위요인	문 항 수	신뢰도, 타당도	전문 상담 교사 논문	전문 상담 교사 논문
상담 교사 의 심리 적 특징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	김아영, 차정은 (2005)	학생상담, 자문, 조정, 대집단 생활지도, 학교상담 프로그램 운영	33	신뢰도만 제시	3	0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척도 (CASES)	Lent, Hill & Hoffman (2003),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타당화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40	신뢰도만 제시	5	0
		상담자 자기효능감척도	Larson 외(1992), 홍수현 (2001) 변안	세부상담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	27	신뢰도만 제시	2	0
		상담자 자기효능감척도	양명희, 김성희 (2011)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상담태도 자기효능감, 상담위기대처 자기효능감	44	신뢰도만 제시	3	0
		전문상담교사 자기효능감척도	김은경(2016)	정서조절 효능감, 상담효능감, 저극-대처 효능감	34	신뢰도만 제시	1	0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척도	박지원 (1985)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19	신뢰도만 제시	3	0
		사회적지지척도	Caplan, Cobb, French, Harrison ,Pinneau(1980), 박성호(2001)	수퍼바이저로부터의 지지, 동료로부터의 지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16	신뢰도만 제시	1	0
	정서	정서지능척도	Wong & Law (2002)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	16	신뢰도만 제시	2	0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척도 (PANAS)	Watson, Clak, Tellegen(1988)	긍정정서, 부정정서	20	신뢰도만 제시	0	1
	내재적동기	내재적동기척도	Ryan(1982), 최진훈(2007) 수정	재미와 즐거움, 유능감, 자기선택감, 압박과 긴장	22	신뢰도만 제시	1	0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안녕감척도	Ryff(1989)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46	신뢰도만 제시	1	0
	삶의 의미	삶의의미척도	Sterger, Frazier, Osili, & Kaler (2006),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	의미존재, 의미 추구	제시 안됨	신뢰도만 제시	0	1
	삶의 만족	삶의만족척도	Diener 등(1985)	제시안됨	5	신뢰도만 제시	0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척도	Klohn(1996), 박현진(1996) 변안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29	신뢰도만 제시	1	0
	자기위로 능력	자기위로능력척도	Glassman(1989), 박효서(1999) 수정	회복력, 신체적 위로하기,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	42	신뢰도만 제시	1	0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임파워먼트 척도	Spreitzer(1995), 박유찬(2012) 수정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	19	신뢰도만 제시	1	0
	성격특성	5요인성격특성 척도	Goldberg(1999), 유태용, 이기범 (2004) 변안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50	신뢰도만 제시	2	0
	계(%)						27 (27.27)	3 (30)

상담교사의 역할	직무		학교상담자 역할 척도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2005)	상담지원체계 구축, 조정활동, 생활지도, 발달촉진상담, 교정상담	33	신뢰도만 제시	4	0	
			전문상담교사 역할수행 척도	유순화, 류남애 (2006)	개인 및 집단상담, 교직원 및 부모 자문, 의뢰 및 관리, 조정, 검사 및 결과 관리, 학습 단위 교육활동, 자기개발 및 연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홍보활동 및 사무	60	신뢰도만 제시	2	0	
			전문상담교사 역할행동 척도	허승희, 박성미 (2004)	학교 및 학급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조직과 실행, 전반적인 생활지도 체제 지원, 학교상담 관련 행정업무, 개별 및 집단상담,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아동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40	신뢰도만 제시	3	0	
	당사자	직무정체성	전문직정체성 척도	Anderson(1977), 박종우(1994)	전문직의 사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자기분야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25	신뢰도만 제시	4	0	
			직무기대	상담교사 역할 기대 척도	강진령, 이종현 (2004)	직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 처우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대	60	신뢰도만 제시	4	0
		직무만족	직무만족척도 (JDI)	Smith, Kendall, & Hulin (1963), 박진희(1994) 변안	직무, 감독, 동료관계, 전직과 이직, 보수	32	신뢰도만 제시	2	0	
			직무만족척도	박세영(1993)	상사관계에 대한 만족, 업무에 대한 만족, 직업 자부심에 대한 만족,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직업 보상에 대한 만족	33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만족척도	Brayfield& Rothe (1951)	제시안됨	8	신뢰도만 제시	0	2	
			처우만족도척도	유순화, 류남애 (2006)	전문성 존중, 직무수행여건, 근무처환경, 인사승진	23	신뢰도만 제시	1	0	
			상담만족도 척도 (CSQ)	Larsen(1979), 김원중(1993) 변안	상담자의 상담만족도, 내담자의 상담만족도	8	신뢰도만 제시	0.5	0	
			직무수행 경험					0	0	
		역할 관련 어려움	역할 관련 스트레스	역할모호성척도	하미승, 권용수 (2002) 변안	없음	3	신뢰도만 제시	1	0
				역할과다척도	김태웅/1999) 변안	학교행정가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5	신뢰도만 제시	1	0
				역할스트레스 척도	Jayarathne & Chess (1981), 윤부성 (2000) 수정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과다	13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스트레스 척도(SF-KOSS)	장세진 외(2005)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24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스트레스 척도	강문실 (2008)	의기소침, 직무부담, 시간적 압박감	15	신뢰도만 제시	0	1
				대인관계스트레스 진단척도	하재윤(1996),노종희 (2001)	제시안됨	30	신뢰도만 제시	4	0
				스트레스 척도	가재경(2006)	상담장면, 학교업무, 가정생활, 교사개인	44	신뢰도만 제시	1	0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임용우(1994)	도전적, 회피적, 정서완화적 대처 유형	30	신뢰도만 제시	2	0
				직무환경위험 요소척도	Jayarathne& Chess(1981), 이영미(1991)변안	도전,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과다	19	신뢰도만 제시	4	0

주 변 인	갈등	직무환경인식척도	Jayaratne &Chess (1984), 도은숙(2007)변안	도전, 역할갈등, 역할 보호성, 업무과다	47	신뢰도만 제시	1	0	
		환경스트레스 척도	D'Areinzo, Moracco & Danford, (1982)	근무환경요인, 전문성 신장요인, 경제적 요인	11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환경 스트레스척도	소혜정(2005)	근무환경요인, 전문성 신장요인, 경제적 요인	11	신뢰도만 제시	1	0	
		역할갈등척도	하미승, 권용수 (2002)	제시안됨	3	신뢰도만 제시	1	0	
		역할갈등 척도	Pareek(1994), 채영병(2005) 수정	역할고립 갈등, 역할기대 갈등, 개인-역할갈등, 역할보호성 갈등, 역할지체 갈등, 역할 간 갈등, 역할과다 갈등	35	신뢰도만 제시	2	0	
		일-가정 갈등 척도	Gutek 외(1991), Cinamon & Rich (2002) 수정	일가족 갈등, 가족 일 갈등, 일가족 갈등	14	신뢰도만 제시	1	0	
		조직내갈등 척도	Jehn(1995)	과업 갈등, 관계 갈등	8	신뢰도만 제시	0	1	
		소진	심리적소진 척도 (M B I)	Maslach & Jackson (1996), 유성경, 박성호 (2002) 변안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22	신뢰도만 제시	5	1
			심리적소진 척도 (MBI-ES)	Maslach & Jackson(1986), 유정이(2002) 변안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	22	신뢰도만 제시	1	0
			한국판상담자 소진척도 (K-CBI)	Lee 외(2007), Yu(2007) 타당화	신체적피로감, 무능감, 비협조적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저하, 사생활 악화	20	신뢰도만 제시	10	0
			학교상담자 심리적소진척도	박희현, 김광용 (2005)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	38	신뢰도만 제시	2	0
			직장소진척도 (MBI-GS)	신강현(2003) 타당화	제시안됨	15	신뢰도만 제시	1	0
			감정노동척도	Gilstrap(2005), 이진화(2007)	표면행동, 내면행동	10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기대	상담자에 대한 기대척도	Tinsely(1980), 정경애(2001) 수정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특성	30	신뢰도만 제시	1	0	
		직무충족	상담만족도 척도 (CSQ)	Larsen(1979), 김원중(1993) 변안	상담자의 상담만족도, 내담자의 상담만족도	8	신뢰도만 제시	0.5	0
	계(%)							65 (55.6)	5 (50)
상담 교사 의 역량	요구						0	0	
	육 성	교육					0	0	
		수퍼비전					0	0	
	평가	전문상담교사 역량척도	정환경(2015)	교육역량, 상담역량, 태도역량, 관계역량, 행정역량	19	신뢰도만 제시	1	0	
		진로상담수행역량 자가평가척도	최윤정, 이재경 (2014)	진로상담수행역량 자가평가 3개 역량군, 14개 하위요인	14	신뢰도만 제시	0	1	
	계(%)							1 (1.01)	1 (10)
상담교사의 전문성발달		상담자발달수준 척도(KCLQ)	심홍섭(1998)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 윤리적 태도	50	신뢰도만 제시	1	0	
계(%)							1 (1.01)	0 (0)	
상담교사 관련 법, 제도	윤리	윤리적가치관 척도	Schlenker & Forsyth(1985), Park, Treise, & Weigold(1995) 변안	이상주의적 가치관, 상대주의적 가치관	20	신뢰도만 제시	1	0	
		계(%)							1 (1.01)

기타	공감척도	Hagan(1967)	제시안됨	64	제시안됨	1	0
	공감반응 수준검사	Carkhuff(1969), 마정건(1988) 변안	제시안됨	5	제시안됨	1	0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척도	원경아(2003)	인지, 정서, 행동	36	신뢰도만 제시	1	0
	역전이행동척도	Friedman & Gelso(2000), 김지은, 조성호(2006) 타당화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	17	신뢰도만 제시	1	0
	서비스 품질 GAP 모형 척도	Rudolf, Tatjana(2009), Young&Varble(1997)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감정이입/공감, 유형성	22	신뢰도만 제시	0	1
	학교지원 요인척도	윤영근(2007)	교장지원 요인, 교사지원 요인	24	신뢰도만 제시	0	0
					계(%)	4 (4.04)	1 (1.0)
총계(%)						99 (100)	10 (100)

학교상담교사 관련 변인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 활용 동향의 결과는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상담교사의 역할, 상담교사의 역량, 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 기타의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활용된 측정도구들 중 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검사도구가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관련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총 32개의 측정도구가 109회 활용되었다. 측정도구들은 전문상담교사 연구에서 99회, 진로전담교사 연구에서 10회 활용되었는데, 이 중 타당화가 이루어진 측정도구는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척도(CASES, Lent, Hill & Hoffman (2003) 개발,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2007) 타당화), 한국판상담자소진척도(K-CBI, Lee et al (2007) 개발, Yu et al. (2008) 타당화), 직장소진척도(MBI-GS, 신강현(2003) 타당화), 진로상담 수행역량 자가평가척도(최윤정, 이제경(2014) 타당화), 역전이행동척도(Friedman & Gelso(2000) 개발, 김지은, 조성호(2006) 타당화), 상담자발달수준척도(심홍섭, 1998)의 5개에 불과하였다.

각 하위주제별 측정도구들은 역할 관련 어려움(12개), 소진(6개), 직무만족(5개), 갈등(4개), 직무(3개), 직무정체성(1개), 직무기대(1개), 주변인의 기대(1개), 주변인의 직무충족(1개)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직무수행경험 관련 측정도구는 활용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활용된 하위주제들 관련 측정도구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역할 관련 어려움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역할스트레스와 직무환경위험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주로 Jayaratne & Chess (1981)의 스트레스 질문지를 변안한 도구(윤부성, 2000; 이영미, 1991)가 6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둘째, 심리적 소진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체로 Maslach & Jackson (1986, 1996)의 심리적소진척도(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변안한 척도(MBI-ES(유정이(2002) 변안), MBI(유성경,

박성호(2002) 변안))와 상담자소진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CBI, Lee et al. (2007))를 Yu(2007)가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 한 한국판 상담자 소진 척도(K-CBI, 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가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직무만족 관련 변인 측정도구는 3개의 직무만족척도(JDI(Smith, Kendall, & Hulin (1963) 개발); 박세영 (1993) 개발; Brayfield & Rothe (1951) 개발)가 통일되지 않고 5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넷째, 갈등 관련 변인 측정도구도 통일되지 않고 하미승, 권용수(2002)가 개발한 역할갈등척도, Pareek (1994)이 개발하고 채영병(2005)이 수정한 역할갈등척도, Jehn (1995)이 개발한 조직 내 갈등척도, Gutek 외 (1991)이 개발하고 Cinamon & Rich (2002)이 수정한 일-가정 갈등 척도가 활용되었다.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관련 변인 측정도구 역시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지지, 정서와 같은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로 통일되지 않고 활용되고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6가지 종류의 검사들이 활용되고 있었다(김아영, 차정은, 2005; Lent, Hill & Hoffman(2003) 개발,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2007) 타당화; Larson 외 (1992) 개발, 홍수현, 최해림(2001) 변안; 양명희, 김성희, 2011; 김은경, 2016).

마지막으로, 상담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발달,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 관련 변인 측정도구는 상담교사 역량 측정도구 2개(전문상담교사역량척도(정환경, 2015), 진로상담수행역량 자가평가척도(최윤정, 이제경, 2014)) 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 측정도구 1개(상담자발달수준척도(심홍섭, 1998)) 상담교사 관련 윤리, 법, 제도 측정도구 1개(윤리적가치관 척도(Schlenker & Forsyhh(1985)개발, Park, Treise, & Weigold(1995) 변안)로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상담의 주요 주체인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와 관련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이슈,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학교상담 연구와 실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상담교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178편을 선정하여 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분석방법, 측정도구,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에 따른 학교상담교사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연구는 2000년부터, 진로전담교사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교사, 학생 등의 학교 구성원 등의 혼합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고, 예비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2005년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본격적으로 배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성격이 일반 교사이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수업을 겸임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청의 Wee 센터나 Wee 클래스의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도 전문상담교사와 혼합 대상으로서 학교상담자라는 명칭으로 연구되고 있었는데(손현동, 2012; 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임은미, 2014; 한아름, 오인수, 2014, 김민향, 김동민, 2015;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 2015), 전문상담교사와 분명히 다른 역할 및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전문상담교사와 역할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담전공 일반교사도 학교상담자라는 명칭으로 전문상담교사와 혼합대상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강진령 외, 2007), 상담전공 일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비교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진로전담교사 관련 학위논문은 총 11편으로 매우 미비하였다. 특히,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교상담 안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의 관심이 요청된다.

둘째,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의 동향 분석 결과, 전문상담교사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가 양적연구만큼 이루어진 점이 주목할 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상담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박승민, 2012)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진로전담교사 연구는 양적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방법의 적용이 미흡하였고, 특히 학위논문에서 질적 연구가 1편만 이루어졌다. 양적연구 통계방법은 전문상담교사 연구와 진로전담교사 연구에서 모두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질적 연구 통계방법에서도 다양한 방법 적용에 한계를 보였는데, 전문상담교사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사례연구, 생애사 방법이, 진로전담교사 연구에서는 현상학, 개념도, CQR, 내러티브, Q방법론, 문화기술지 방법이 적용된 연구가 없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질적 연구 적용이 요청된다.

셋째,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측정도구 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상담교사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었지만 학교상담교사 관련 변인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상담교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 도구가 다양하면 여러 연구를 상호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김제현, 2009),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같은 대상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지은, 이제경, 2015).

넷째,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모두 상담교사의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연구가 전체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상담교사 관련 윤리·법·제도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관련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연구 모두 ‘역할관련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교상담교사의 배치 이후 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가 무엇인지 정립하고 안정화되는 과정까지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담교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강진령, 2002; 김인규, 2012; 이현아, 이기학, 2009; Wilkerson & Bellini, 2006). 특히, 전문상담교사 연구에서 상담교사의 소진과 관련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는데, 상담교사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족, 동료의 비협조, 관리자의 상담인식 부족, 교사-상담자 간 역할 모호 및 갈등, 상담자로서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거나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박근영, 임은미, 2014; 엄재춘, 조영옥, 임경희, 2013; 이영아, 손은령, 2015; 한아름, 오인수, 2014). 이는 학교상담교사가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역할 갈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김희대, 2007; 박근영, 임은미, 2014; 손혜진, 2010; 이현아, 이기학, 2009; 황정희, 오정희, 2012)와 일치하는 결과다.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휘의 방해요인으로, 그리고 내담자 복지의 최대화 방해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이샘, 최한나, 2012) 상담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극복 방안을 실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심리적 소진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데(한아름, 오인수, 2014), 학교상담교사 연구에서는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중 전문직 정체성(김정숙, 유금란, 2010),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서지영, 김희정, 2011), 정서지능(한아름, 오인수, 2014)이 소진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국내 학교상담교사는 공통적으로 상담실 운영 및 관리, 개인 상담 활동, 집단 상담 활동,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상담자들과 달리 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자문, 학부모 교육 및 자문 등 예방 및 교육과 자문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nyne(2004)이 학교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발달적이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일반상담자와 달랐는데,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연구 모두 공통 직무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직무가 중첩되는 점이 많아서 두 상담교사 사이에 역할 혼란과 모호함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기 때문에(김희대, 2013; 서영석 외, 2011), 각 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두 대상을 비교한 연구의 경우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두 대상의 독특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요청된다. 또한, 학교 급별로 요구하는 상담교사의 역할도 다른 만큼(신현숙, 김인아, 류정희, 2004; 허승희, 박성미, 2008), 학교 급별, 근무 장소에 따른 직무 차이가 어떠한지, 상담교사의 상담 개입 문제 유형, 학생 유형에 따른 좀 더 세분화된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는 학교상담교사의 효율적인 배치 및 정착을 위해 공통적인 직무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상담교사의 근무 장소, 문제유형, 학생유형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특수 직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담교사의 직무 관련 연구가 구체적인 상담개입 기술 및 상담 성과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상담교사의 역량에 대한 하위주제의 경우, 두 상담교사 모두 ‘육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 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교육 관련 연구, 진로전담교사의 경우는 진로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상담학적 개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만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상담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육성’에 머무르는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약 16%인 것과는 달리(국회입법조사처, 2016),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율이 거의 97%에 이르고 있는 만큼(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게다가 상담교사에 따라 전문적인 훈련과 연수를 다르게 받고 있어서, 상담교사의 자격, 종류 등 전문적 훈련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자의 상담경험은 상담자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최한나, 2005), 상담교사의 배경에 자격증 급수, 실제 학교상담 기간과 더불어 총 상담 사례수, 슈퍼비전 횟수, 교육경험 등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에서 상담교사의 다양한 전문적 배경에 따른 특수한 경험을 고려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였다. 상담자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은 상담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학교상담교사들의 자기 인식과 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하다(김혜숙, 이기학,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교사의 슈퍼비전 관련 연구는 전문상담교사 연구 3편(강진령, 2009; 남순임, 유형근, 2016; 허난설,

2016), 진로전담교사 연구 1편(장창곡, 이지연, 2017)에 불과하였다. 이는 아직 상담교사를 위한 슈퍼비전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부장이나 일반 교사가 전직한 경우가 많아서 진로상담자의 역할보다는 진로교육과 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하여(최윤정, 2016), 학생들의 주요 고민이 진로문제로 진로상담의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김은경, 2014) 이들의 진로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한편, 상담교사 관련 윤리·법·제도 연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기본적으로 상담교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예: 김인규, 2009, 박재환, 2012)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윤리적 갈등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주제(손현동, 2012)에, 진로전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직업체험·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세부 교육정책 실행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김옥선, 권정언, 2015; 류영철, 2016)이 있었다.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좀 더 ‘상담’에 관심을 두고 있고, 진로전담교사는 국가의 진로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각종 사업의 수행·개선 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상담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비해 윤리·법·제도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교사 집단이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특히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배치율이 미비하며, 전문상담교사 대 체인력의 경우,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문상담교사의 윤리·법·제도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교사 연구의 경우는 상담교사의 심리적 특징, 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전담교사보다 약 6년 정도 먼저 시작한 만큼 진로전담교사보다 먼저 전문가로서의 발달단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진로전담교사 연구에서도 점차 관련 연구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상담교사 관련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교상담교사에 대한 연구가 직무나 전문적 배경, 정서적 안정성 분석 위주로 진행되어 학교상담교사의 배치 기간인 12년에 비해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초기 단계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 방법, 주제에 있어서 더욱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상담교사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상담교사의 상담경험, 상담관계, 학교상담교사의 기대, 이론적 배경 등 학교상담교사의 개인적 특성 분석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상

담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슈퍼비전 및 교육 등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상담교사들이 교사와 상담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체계적인 업무 체계가 미비하여 교육행정가의 재량에 따라 다르고 학교 급별로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박근영, 임은미, 2014; 손혜진, 2010), 학교상담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또한, 학교상담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이 상담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상담어려움, 역할 갈등 등 학교상담교사가 지닌 어려움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학교상담교사의 개개인의 특성과 어려움에 안정맞춤형 조력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학교상담교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같은 변인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측정 변인에 대한 일관적인 척도 사용이 요청된다(이지은, 이제경, 2015).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학교상담이 들어온 지 70여년이 흘렀고, 학교상담 전담인력이 배치된 지 12년이 흐른 현재 그 외연이 확대되어가는 반면, ‘상담 고유의 전문성 훼손의 위기’라는 진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학교상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상담교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학교상담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이자, 전문상담교사를 구성하는 인력 중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인 전문상담사 집단(성현모, 이상민, 2017)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담교사, 학교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 보조사 등 다양한 인력에 의한 학교 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본다면(김희대, 2014),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국내 학교 내 상담인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학교 내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보다 면밀히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전문상담교사로 신규채용이 된 집단과 일반교사로서 소정의 연수를 받고 상담교사로 전직한 대상자의 사례를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이야말로 ‘학교상담’이라는 테두리 안의 다양한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줌으로써 상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좀 더 다각적으로 학교상담 및 학교상담교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국내 학교상담교사 변인들이 상담성가에 미치는 효과를 메타 분석하고, 학교상담교사를 교육, 훈련하고 학교 상담교사 관련 지침 및 정책을 구성하는 연구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진령 · 손현동 · 조은문 (2005). 중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3(2), 61-74.
- [Kang, J. R., Son, H. D., & Cho, E. M. (2005). An analysis of the needs to the role of the middle school counsel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2), 61-74.]
- 강진령 · 이종연 ·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과 대처방법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5(1), 17-27.
- [Kang, J. R., Lee, J. Y., & Son, H. D., (2007). An analysis of the school counselor's ethical dilemmas and coping strategi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1), 17-27.]
- 고홍월 · 홍지선 · 전호정 · 조수연 (2015). 집단 수퍼비전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6(2), 97-119.
- [Gao, H. Y., Hong, J. S., Jeon, H. J., & Jo, S. Y. (2015).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Group Supervi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2), 97-119.]
- 교육과학기술부 (2011). **Wee프로젝트 개선방안**.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Wee project improvement plan*.]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장중심 진로교육활성화 방안**.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A Plan of Activation for the Field-based Career Education*.]
- 교육부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 [Ministry of Education. (2013). *Guidance on placement and operation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 교육부 (2017). **2017년 진로교육 세부발표계획**.
- [Ministry of Education. (2017). *Plan to career education in 2017*.]
- 구승영 · 김계현 (2015). 학교상담 관련 주체의 입장에 따른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6(4), 321-338
- [Koo, S. Y., & Kim, K. H. (2015). Analysis on the confidentiality exception judgement made by stakeholder`s stance in school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4), 321-338.]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Bureau. (2016). *Improvement of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System: Focusing on the Placement Rate*.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2015 Governmental Audit.]
- 권수영 · 이신형 · 황진태 ·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 [Kwon, S. Y., Lee, S. H., Hwang, J. T., & Son, J. G. (2016). A Study on Nationalizing Professional Counseling Certification :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The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27(4), 9-29.]
- 김계현 (2009).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Kim, G. H., (2009).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Seoul: Hakjisa.]
- 김계현 · 김동일 · 김봉환 · 김창대 · 김혜숙 · 남상인 · 조한익 (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Kim, G. H., Kim, D. I., Kim, B. H., Kim, C. D., Kim, H. S., Nam, S. I., & Cho, H. I, (2000). *School Counseling and Guidance*. Seoul: Hakjisa.]
- 김민향 · 김동민 (2015).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Wee 클래스 상담자의 인식 분석. **상담학연구**, 16(6), 447-463.
- [Kim, M. H., & Kim, D. M. (2015). The Analysis on the Wee Class Counselor's Perception of School Counselor Ro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6), 447-463.]
- 김영근 · 김현령 · 이정인 · 신재훈 · 신동미 ·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Kim, Y. G., Kim, H. R., Lee, J. I., Shin, J. H., Shin, D. M, & Lee, S. M. (2012). The Pilot Study for Enacting the Counselor's Law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3), 641-670.]
- 김옥선 · 권정언 (2015). AHP를 이용한 교육기부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생의 직업체험 성과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1-19.
- [Kim, O. S. & Kwon, J. E. (2015).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Success Factors on Work Experience among Education Donators, Career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AHP.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19.]
- 김은하 · 박승민 (2011).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Kim, E. H., & Park, S. M. (2011). The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on the working allianc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1), 1-25.]
- 김인규 (2009). 학교상담 :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Kim, I. G.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yst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517-534.]
- 김인규 (2012). 학교상담 발전방안 연구. **교육종합연구**, 10(3), 235-256.
- [Kim, I. G. (2012). A study on developmernal plan of school counseling.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0(3), 235-256.]
- 김인규 (2017). **전문상담사 자격의 법적 근거**. 2017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자료집.
- [Kim, I. G. (2017). *Legal basis of professional counselor qualification*. 2017 Korea Council of Counseling annual conference resources.]
- 김인규 · 조남정 (2010). DACUM기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분석연구. **한국교육연구**, 27(2), 97-115.
- [Kim, I. G. & Cho, N. J. (2012). Job Analysis of School Counselor using DACUM method.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2), 97-115.]
- 김정숙 ·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 [Kim, J. S., & You, K. R. (2010). A Moder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53-69.]
- 김지경 · 장현아 (2014).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국내 동향과 과제. **인지행동치료**, 14(2), 239-265.
- [Kim, J. K., & Jang, H. A. (2014). Research on Posttraumatic Growth in Korea: Trends and future

- direction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2), 239-265.]
- 김지연 · 김동일 (2016).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 *상담학연구*, 17(3), 377-396.
- [Kim, J. Y., & Kim, D. I. (2016).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for school counselors' ro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377-396.]
- 김지은 · 조성호 (2006).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17-136.
- [Kim, J. E., & Cho, S. H. (2006). The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1), 117-136.]
- 김태웅 (1999). 역할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조직구성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T. W. (1999). *Impact of Job Stress from Concerns for Ro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Job Attitude : From the view point of organizational-based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김혜숙 · 이기학 (2012). 전문상담교사 경력 단계별 연수 요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05-528.
- [Kim, H. S., & Lee, K. H. (2012). A Study of Concept Mapping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Service Training Needs according to their Career Stage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505-528.]
- 김희대 (2007).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 고양: 서현사.
- [Kim, H. D. (2007). *Korean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System*. Goyang: Seohyoensa.]
- 나문경 (2007).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초등학교 교사·학부모간 갈등중재모형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ha, M. K. (2007). *The Construction of a conflict mediation model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for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South Korea.]
- 류남애 (2014).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자용 단기개입모형의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Ryu, N. A. (201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hool Counselors' Short-Term Intervention Model for School-Refusa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 류영철 (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 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3), 164-202.
- [Ryu, Y. C. (2016). Analysis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Perception on Free Semester System. *Korean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0(3), 164-202.]
- 문항익 (2015). 학교급에 따른 학교상담자의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에 관한 차이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oon, H. I. (2015). *Differences in School Counselors' Role Expectations and Role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Pyeongtaek University.]
- 박근영 · 임은미 (2014).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중등교육연구*, 62(1), 171-198.
- [Park, K. Y., & Lim, E. M. (2014). The Study of Concept Mapping about Experience of Burnout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The Journal of Secondary Education*. 62(1), 171-198.]
- 박세영 (1993). 형평구성요인, 직무만족 및 전직의사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rk, S. Y. (1993). *The 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of equity,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 Graduate School of Seo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 [Park, S. M. (2012).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953-977.]
- 박용호 (2011).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 교육적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1), 117-136.
- [Park, Y. H. (2011). The Career Guidance Teacher's Competencies :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the Educational Need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1), 117-136.]
- 박재환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H. (2012).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Career Education & Guidance Teacher : Around secondary schools in Chung-Buk Provinc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South Korea.]
- 박종학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H. (2012). *Analysis of High School Teacher's Demand on the Career & Guidance Counseling Teacher System*. Graduate School of Incheon University. Incheon, South Korea.]
- 서지영 · 김희정 (2011).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교원교육**, 27(3), 227-250.
- [Seo, J. Y., & Kim, H. J. (2011).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Role Stress on Their Burnout :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7(3), 227-250.]
- 성현모 · 이상민 (2017).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8(5), 263-285.
- [Seong, H. M., & Lee, S. M. (2017). School-based Counsel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5), 263-285.]
- 성혜숙 (2010).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상담 사례개념화 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eong, H. S. (2010). *Development of conceptualizing tool for school counseling case for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South Korea.]
- 소혜정 (2005).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o, H. J. (2005).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Counselor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yungbuk, South Korea.]
- 손현동 (2007).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5(2), 3-14.
- [Son, H. D. (2007). A Review of Legal Codes Related to School Counselors' Confidentiality and Its Limit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2), 3-14.]
- 손현동 (2012). 학교상담자의 자문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와 해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265-286.
- [Son, H. D. (2012). School Counselors Ethical Issues and consideration related with Consultation relationship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265-286.]
- 손현동 · 진명식 · 유형근 (2008). 학교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

- 한 개념화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9(4), 1801-1817.
- [Son, H. D., Jin, M. S., & Yu, H. K. (2008). An Analysis for the Difference of Conceptualization on the Ethical Conflict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xpertise Level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4), 1801-1817.]
- 손혜진 (2010).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환경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on, H. J. (2010).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occupational stresses of the school counselors that could have lead to burnou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송수정 · 오인수 (2016).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전문상담교사 제공 서비스의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 탐색, **교원교육**, 32(2), 111-135.
- [Song, S. J., & Oh, I. S. (2016). An Explor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n Helpful and Dissatisfied Factors in School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2(2), 111-135.]
- 신강현 (2003).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 소진 척도 (MBI-GS)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17.
- [Shin, K. H. (2003).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An Appli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3), 1-17.]
- 신현숙 · 김인아 · 류정희 (2004). 중,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 실태와 학교심리학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53-77.
- [Shin, H. S., Kim, I. A., & Lyu, J. H. (2004). Current Status of School Counseling and the Necessity of School Psychological Services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1), 53-77.]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Shim, H. S. (1998).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al levels of Korean counsel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eong University, South Korea.]
- 양명희 · 김성희 (2011).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5), 1629-1644.
- [Yang, M. H., Kim, S. H.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Self-Efficacy Scal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5), 1629-1644.]
- 엄재춘 · 조영옥 · 임경희 (2013). 학교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환경위험요소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5), 3125-3143.
- [Um, J. C., Cho, Y. O., & Lim K. H. (2013).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Risk Factors at Job Environment on Burnout in School Counsel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3125-3143.]
- 연문희 · 강진령 (2002). **학교상담**. 서울: 양서원.
- [Yeon, M. H. & Kang, J. R. (2002). *School Counseling*. Seoul: Yang Seo Won.]
- 연문희 · 강진령 (2002). **학교상담-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Yeon, M. H. & Kang, J. R. (2002). *School Counseling. 21st century*. Seoul: Yang Seo Won.]
- 오효순 (2008).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 개입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교사자문 모형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h, H. S. (2008). *The Construction of a teacher consultation model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for intervention with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유성경 · 박성호 (2002).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89-400.

- [Yoo, S. K. & Park, S. H. (2002).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ounselors' Burnou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2), 389-400.]
- 유순화 · 류남애 (2006). 제 1기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직무기대 조사연구. **상담학연구**, 7(3), 899-915.
- [Yoo, S. H., & Ryu, N. A. (2006). A Survey of Role Expectation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899-915.]
- 유정 이 (2002). 교육환경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5(2), 315-328.
- [Ryu, J. Y. (2002). Influence of Occupational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in Korea.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5(2), 315-328.]
- 이수현 · 서영석 · 김동민 (2007).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55-673.
- [Lee, S. H., Seo, Y. S., & Kim, D. M. (2007).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655-673.]
- 이지원 · 오인수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7(4), 351-372.
- [Lee, J. W., & Oh, I. S. (2016). Phenomenological Study on a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4), 351-372.]
- 이영미 · 성규탁 (1991). 우리나라 사회사업가들의 소진 (BURNOUT)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25-60.
- [Lee, Y. M., & Seong, K. T. (1991). Korean Social Workers' Burnou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8, 25-60.]
- 이영아 · 손은령 (2015).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적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문화연구**, 21(6), 141-168.
- [Lee, Y. A. & Son, E. Y. (2015). A Narrative Inquiry on School Counselors' Experience of Adaptation in a School. *Education Culture Research*, 21(6), 141-168.]
- 이은정 (2007).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폭력 중재모형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E. J. (2007). *Construction of a school violence mediation model for The profession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이장호 · 정남운 ·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Lee, J. H., Jeong, N. Y., & Cho, S. H. (2005). *Fundamentals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 이종현 (2005). 학교상담교사의 직무 및 역할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ee, J. H. (2005). *An Analysis of the Korean school counselor's job and ro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이지은 · 이계경 (2015).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6(5), 171-192.
- [Lee, J. E. & Lee, J. K. (2015). The Effect of psychological problems on career issues: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5), 171-192.]
- 이현림 (2005).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 교사의 역할. **상담과 지도**, 40, 1-22.
- [Lee, H. L. (2005). The role of professional counselors in revitalizing school career education. *Counseling and Guidance*, 40, 1-22.]
- 이현아 · 이기학 (2009).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의 관

- 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6(1), 83-102.
- [Lee, H. A. & Lee, K. H. (2009). The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83-102.]
- 임은미 · 여영기 (2015). 사회정의 상담 : 저출산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새로운 방향. **교육중합연구**, 13(3), 141-161.
- [Lim, E. M. & Yeo, Y. G. (2015). Social Justice Counseling : A New Orientation of Career and Guidance Counseling for Low Fertility Trend.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3(3), 141-161.]
- 장현진 · 이종범 (2016).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진로교육연구**, 29(3), 1-2.
- [Jang, H. J. & Lee, J. B. (2016). Research on the Revision of the Standard Pre-service Training Curriculum for the Career Education & Guidance Teache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3), 1-2.]
- 정봉희 (2010)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편성체제 개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eong, B. H. (2010).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ramework for educating school counsel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South Korea.]
- 정환경 (2015).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eong, H. K. (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petencies Scale of School Counseling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South Korea.]
- 차정은 · 김아영 (2006).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5-130.
- [Cha, J. E. & Kim, A. Y. (2006).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berrant Responses and Personality Sub-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115-130.]
- 채영병 (2005). 고등학교 교사의 개인배경, 역할갈등, 학교조직풍토, 자아효능감과 직무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hae, Y. B.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background, role conflict, school organizational climate,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high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천성문 (2015). 자문기술향상 프로그램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컨설팅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7(1), 1-16.
- [Cheon, S. M. (2015). Effect of Consultation Skill Improvement Program on Consult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areer Education & Guidance Teacher. *Korean Journal of Education Therapist*, 7(1), 1-16.]
- 천성문 · 설창덕 (2003).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상담학연구**, 4(3), 563-575.
- [Cheon, S. M., & Sol, C. D. (2003). A Study on School Counseller's Role and task for a Happy Schoo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4(3), 563-575.]
- 최보영 · 이지희 · 이상민 (2010).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성과분석. **교육방법 연구**, 22(1), 243-263.
- [Choi, B. Y., Lee, J. H., & Lee, S. M. (2010). Outcome Analysis on School Counseling Policy through Economic Value Estim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1), 243-263.]
- 최선 · 고유림 · 박정은 · 신예지 · 강민철 (2012).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에 대한 고찰 : 학교상

- 담학회 윤리강령 개정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05-524.
- [Choi, S. et al. (2012). A Study on a Ethical Code for School Counselors: Focused on Suggestions for the New Ethical Code of the Korean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505-524.]
- 최윤정 · 이제경 (2014). 진로상담 수행 역량 자가 평가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475-1493.
- [Choi, Y. J., & Lee, J. K. (2014). Validation of Competency Self-Assessment Scale for Career Counseling Performa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4), 1475-1493.]
- 최정아 (2017). 학업지연행동 유형분류연구의 동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65-86.
- [Choi, J. A. (2017). Review of Typological Studi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0), 65-86.]
- 최한나 (2005). 상담일반: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Choi, H. N. (2005). Research Trends of Counselor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3), 713-727.]
- 하미승 · 권용 (2002).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및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3), 214-245.
- [Ha, M. S., & Kwon, Y. (2002). A Study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tress in the Korean Public Sector. *Korean Government Research*, 11(3), 214-245.]
-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년 교육기본통계자료**.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Basic Education Statistics for 201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2016). *Research on career education in 2016*.]
- 한길자 · 손진희 (2012). Wee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상담자의 인식 비교-천안 Wee 센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203-2227.
- [Han, K. J., & Son, J. H. (2012). Difference in students, Teachers, Counselors Perspective about Effectiveness of Wee Program-Focusing on the Cheonan Wee Cente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203-2227.]
- 한아름 · 오인수 (2014). 학교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교원교육**, 30(2), 227-251.
- [Han, A. & Oh, I. S. (2014).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ounselor's Job Stress and Burnout.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2), 227-251.]
- 한현우 · 이병준 (2015). 인문계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생애사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575-593.
- [Han, H. & Lee, B. J. (2015). A Study on Occupational Biography of Career and Admission Counseling Teache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6), 575-593.]
- 허승희 · 박성미 (2008).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분석. **교원교육**, 24(2), 1-22.
- [Heo, S. H., & Park, S. M. (2008). The need analysis of students, parents, teachers about roles of middle & high school counselor.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4(2), 1-22.]
- 홍대우 (2010).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오늘과 내일. **상담과 지도**, 45, 143-154.
- [Hong, D. W. (2010). Today and tomorrow of professional counselor system. *Counseling and Guidance*, 45, 143-154.]

- 홍수현 · 최해림 (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Hong, S. H., & Choi, H. L. (2001). Contribution of Counselor Self - Efficacy and State - Anxiety to the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Stage of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mberapy*, 13(1), 31-49.]
- 홍지선 · 김수임 (2017). 국내 수치심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33-158.
- [Hong, J., & Kim, S. (201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Shame: A Review of Main Counseling Journals in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6), 133-158.]
- 황정희 · 오정희 (2012). 장애 유아 통합교육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239-262.
- [Hwang, J. H., & Oh, J. H. (2012). A Study on Change of Pre-Childhood Educators`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Inclusive Education through Inclusiv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rogra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3), 239-262.]
- 황준성 · 김성기 · 이덕난 · 안병천 (2011). **학교상담법제화 추진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Hwang, J. S. et. al. (2011). *Study on Strategies for School Counseling Promotion*.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Bradeley, T. E., Monica, G., Kacie, G., & Hallie, C. (2014).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PSC) Publication Pattern Review: A Meta-Study of Author and Article Characteristics from the first 15 Yea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8(1), 61-70.
- Brayfield, A. H., & Rothe, H. F. (1951). An index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5(5), 307-311.
- Buboltz, W. C., Miller, M. Jr.,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481-485.
- Cinamon, R. G., & Rich, Y.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role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Sex roles*, 47(11), 531-541.
- Clark, E. H.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 Conyne (2004). *Preventive Counseling: Helping People to Become Empowered in Systemms and Settings*. New York: Brunner-Routledge.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niel L. Larsen, C.Clifford Attkisson, William A. Hargreaves, Tuan D. Nguyen.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197-207.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alco, L. D., Bauman, S., Sumnicht, Z., & Engelstad, A. (2011). Content Analysis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Journal: The First Ten Yea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4(4), 271-277.
- Forsyth, D. R., Schlenker, B. R., Leary, M. R., & McCown, N. E. (1985). Self-presentational determinants of sex differences in leadership behavior. *Small Group Behavior*, 16(2), 197-210.
- Friedman, S. M.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 Gutek,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568.
- Jehn, K. A. (1995).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intragroup confli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6-282.
- John Moracco, Deborah Danford, Raymond V. & D'Arienzo. (1982). The Factorial Validity of the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2(1). 275-283.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105.
- Lee, S. M., Baker, C. R., Cho, S. H., Heckathorn, D. E., & Holland, M. W. (2007).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Alexandria*, 40(3), 142-154.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97-108.
- Locke, E. A., Smith, P. C., Hulin, C. L., & Kendall, L. M. (1963). *Cornell Studies of Job Satisfaction: V Scale Characteristics of the Job Descriptive Index*. Ithaca: Cornell University.
- Maslach, C., & Jackson, S. E. (1986).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Research Edition. Palo Alto: University of California.
- Maslach, C., & Jackson, S. E. (1996). *Leiter MP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 Pareek, U. (1994). *Making Organizational Roles Effective*. Tata: McGraw-Hill.
- Park, H., Weigold, M. F., & Treise, D. M. (1999). Advertising ethics: South Korean and American perceptions and ideology.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4(2), 95-106.
- Srinika J., & Wayne A. Chess. (1984).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A National Study. *Social Work*, 29(5), 448-453.
- Wilkerson, Kevin & Bellini, James. (2006). Intrapers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4), 440-450.
- Wittmer, J. (2000).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developmental school counseling protra. In J. Wittmer (Ed.), *Managing Your School Counseling Program: K-12 Developmental Strategies* (2nd ed.) (pp. 14-34). Minneapolis, MN: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Yu, K., Lee, S. M., Nesbit, E. A. (2008).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Alexandria*, 41(3), 152-161.

최정아 (pecja@hotmail.com)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학업 및 진로상담, 심리상담의 치료적 변화기제임.

이혜은 (helee11@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상담센터 전임상담원으로 재직 중임. 주요 연구 주제는 진로 및 학교상담, 부부·가족상담임.